

보도시점 : 2023. 11. 2.(목) 11:00 이후(11. 3.(금) 조간) / 배포 : 2023. 11. 2.(목)

K-UAM 2025년 상용화 카운트다운, 담대한 도전 날갯짓

- 11월 3일 전남 고흥에서 K-UAM 그랜드챌린지 공개 비행시연
- 백 차관, “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실증으로 도시 하늘 열어갈 것”

- 11월 3일(금) 전남 고흥의 상공에서 K-UAM 그랜드챌린지*의 역사적 날갯짓이 시작된다.
 - * 기체·버티포트·교통관리·운항서비스 등 UAM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의 참여기관·업체가 참여하여 안전성·통합운용성 등을 검증하는 대규모·중장기 실증사업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도심항공교통(Urban Air Mobility, UAM)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K-UAM 그랜드챌린지와 연계하여 비행 시연행사*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 - * '23.11.3.(금) 11:00~12:30 / K-UAM 실증단지(전남 고흥) / 국토부 2차관, 국회의원 김승남, 전남도 정무부지사, 고흥군수 및 산학연관 관계자 250여명 참석
- 이번 행사는 기체·버티포트·교통관리시스템 등 UAM 구성요소가 유기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되는 모습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의미가 있다.
 - 이번 비행시연에서는 K-UAM그랜드챌린지를 위해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버티포트, 승객 터미널 등 인프라와 국내기술로 개발한 기체가 비행하는 장면을 직접 볼 수 있다.
- 한편, 기체와 버티포트 모형부터 통신·교통관리 프로그램 등 실증사업 참여기업·기관들의 개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전시도 병행됐으며, 주말까지 공개(11.3~11.5)될 예정이다
 - * 현대차·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·베타 테크놀로지(기체 모형), 카카오모빌리티(예약플랫폼), SKT(상공 통신망), 한화시스템(감시레이더), 인천국제공항공사대우건설·롯데건설(버티포트 모형) 등
-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은 “국내외 우수기업의 참여로 세계가 주목하는 K-UAM그랜드챌린지의 역사적 날갯짓이 시작됐다”며, “과감한 규제 특례가 주어지는 ‘도심항공교통법’과 조화를 이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 - 아울러, “그랜드챌린지를 차질없이 완수하여 2025년말에는 국민 여러 분께 도심 하늘길을 열어드리겠다”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승욱	(044-201-3888)
		담당자	사무관	김장일	(044-201-4306)
			주무관	손달현	(044-201-4198)
			주무관	최효경	(044-201-4281)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

참고 1

비행시연 행사 개요

□ 행사 개요

- (일시/장소) '23.11.3(금) 11:00~12:30 / K-UAM 실증단지(고흥)
 ※ (주최 / 주관) 국토교통부 / 한국항공우주연구원
- (참석 범위) 국토부 2차관, 국회의원, 전남도 정무부지사, 고흥군수, UAM팀코리아(산학연) 및 초청 인원 등 약 250명
 * (기체) 현대차 · 한화시스템, (통신사) SKT · KT · LG유플러스, (MaSS) 카카오, (공항) 인천공항공사 · 한국공항공사, (항공사) 대한항공 · 제주항공, (건설사) 현대 · 대우건설 등

□ 행사 내용

- ① (비행 시연) 버티포트 등 국내 최초로 조성된 실제 한국형 UAM 운영환경에서 국내 개발 기체로 운항 시나리오 시연
- ② (기술투어) 실증단지 내 승객터미널에 적용된 기술과 통합감시실 및 소음 측정 등 설비 현장 투어 및 UAM(OPPAV) 기체출고식 행사

탑승 수속장비	보안검색 장비	통합감시장비실	OPPAV 출고식
			
간편한 탑승수속 기술	신속한 보안검색 기술	교통관리 운용 기술	국내기술 개발기체 출고

□ 비행기체

기체	사진	제원	성능
OPPAV (항우연 개발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크기 : 6m · 유상하중 : 100kg(1인승) · 최대이륙중량 : 650kg · 순항속도 : 200km / h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대속도 : 240km/h · 항속거리 : 50km · 최대체공시간 : 45분
SKYLA-V2 (볼트라인사 개발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크기 : 2.6m · 총 중량 : 150kg · 최대이륙중량 : 300Kg · 순항속도 : 60km/h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대속도 : 90km/h · 항속거리 : 25km · 최대체공시간 : 20분

참고 2

K-UAM 실증사업(그랜드챌린지) 개요

① (인프라 구축^{21~22}) 개활지 실증을 위한 이착륙장·격납고 건축, 시험 장비 설계·구축 및 인프라 운용시험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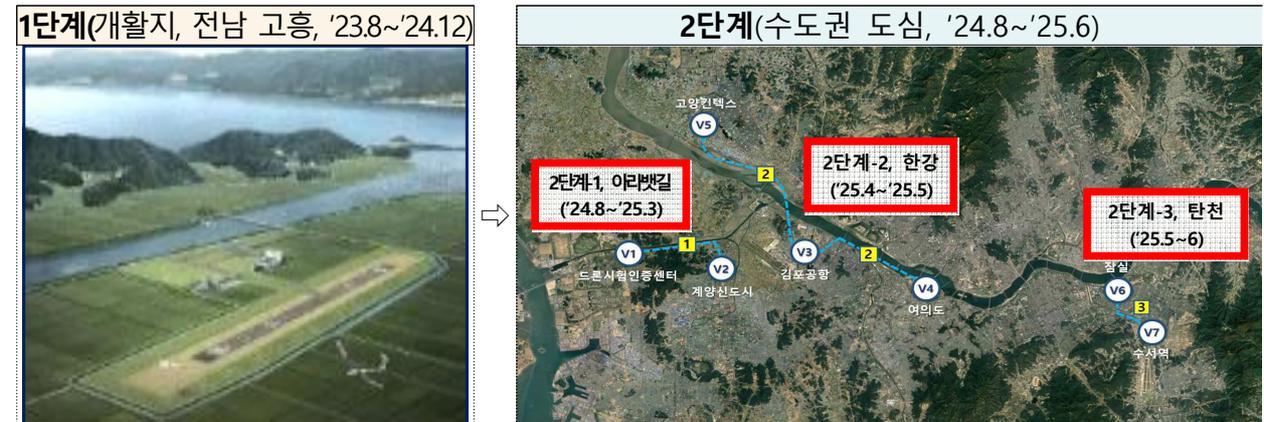
* UAM 모사항공기(Surrogated Aircraft, 예: 헬리콥터)를 이용한 인프라 운용확인 시험

② (1단계 실증^{23.8~24.12}) 비행시험장(개활지, 고흥)에서 사전시험*을 통한 UAM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확인, 통합운용 실증 수행

* 특정 UAM 항공기(또는 UAS 기체)를 이용한 실증 프로그램 운용 사전확인 시험

③ (2단계 실증^{24.8~25.6}) 준도심·도심을 연결하는 실증회랑에서 수행

【 단계적 실증계획 】



▲ 주요 실증범위

- ① 버티포트 운영 및 UAM 교통관리 서비스의 H/W, S/W 안전성 통합점검
- ② 통신, 항법, 감시, 정보 공유·교환을 통한 이해관계자간 역할
- ③ 악천후, 기기고장 등 상황별 비정상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

④ (상용화착수 지원²⁵) K-UAM 그랜드챌린지 실증 데이터 분석, 관련기술 및 인프라 민간제공을 통한 상용화 착수 지원

⑤ (R&D 연계^{22~25}) 실증시험 중 항공기 위치확인 등 안전성 검토 및 초기 상용화 인프라 지원을 위한 R&D과제*와 연계해 진행

* 초기 UAM 교통관리 서비스 및 항로이탈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획득/활용체계, UAM 객체별 운용능력 및 절차 확보를 위한 가상 통합운용 등 2개 신규과제('22~)

